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의 '세계성'과 '종교성'의 문제 - 케이팝 댄스 커버와 히즈라 케이팝 현상

경의영*

I. 연구 목적

II. 연구 방법과 절차

III. 케이팝 댄스 커버 - 무슬림 여학생들의 선택된 '세계성'

IV. 히즈라 케이팝 - 무슬림 여학생들의 선택된 '종교성'

V.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VI. 맺음말

* GP 국제훈련원 부원장

■ 한글초록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에 일종의 서브컬처로 자리잡은 ‘케이팝 댄스 커버’ 문화와 이와 반대의 지점에서 반한류 정서로 시작된 ‘히즈라 케이팝’ 캠페인을 통해 살펴보는 무슬림 젊은이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세계성’과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에 관여하는 ‘종교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케이팝 댄스 커버에 참여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종교성과 연관짓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세속화가 아닌 ‘자아실현’과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욕구이며 그 ‘세계성’에 참여하는 통로로 케이팝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Ex-kpopers들이 주도하는 히즈라 케이팝 캠페인은 이런 문화 전이 현상을 경험하며 문화를 이슬람적인 것과 비이슬람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이에 다시 ‘종교성’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 전이를 경험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이런 반대적 현상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의 복합적이며 다원적 양상을 반영하며 이런 내부적 인식의 ‘차이’와 ‘변화’는 향후 종교와 문화의 관계에 있어 종교의 두드러졌던 권한과 역할이 세계화, 근대화 속에 더욱 다극화, 분화, 개인화 되어 갈 것을 예시한다.

주제어: 케이팝 댄스커버, 히즈라,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 세계성, 지역성, 종교성, 정체성

I. 연구목적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드라마를 시작으로 K로 대표되는 한국의 현대적 대중문화는 세계화의 흐름과 미디어 기기,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아시아 뿐 아닌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주로 '서구'에서 '비서구'로의 진행과 확산이었고,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 역시 미국과 서구 유럽의 비중이 큰 상황이었었는데 한류는 그런 면에서 '서'에서 '동'이 아닌 '동'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이기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류의 이런 전 세계적인 유행과 유통은 문화 콘텐츠의 수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물품의 수출과 관광 등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 문화콘텐츠 진흥원과 같은 연구 기관들은 한류와 관련하여 해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¹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한류에 관한 연구는 이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한 문화 산업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을 위한 전반적인 통계나 종합적 보고서가 아닌 그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의미와 이유, 이해의 시도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자는 2001년 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에 거주하며 한류의 보급과 유행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한류에 대한 수용과 적극적인 참

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는 전 세계대륙별, 주요 나라별 한류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마켓 브리핑(2015), 2016-2017 글로벌 한류실태조사(2016), 글로벌 한류 트렌드(2019)를 참조하였다.

여는 생경함을 너머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왜냐하면 한류가 전 세계적인 유행과 팬덤을 이루어 낸 것은 맞지만 이것을 단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이 지니는 몇가지 요인이나 선호 요인에 대한 통계적 조사만으로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의 한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몇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² 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한류 수용자들 중에 특히 케이팝 댄스 커버에 참여하는 무슬림 청년 여성들을 접촉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분되어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케이팝 댄스 커버란 청소년,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듣고 보는 형태의 소비를 너머 직접 댄스 팀을 구성하여 안무를 그대로 카피하여 따라하는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뮤직 비디오로 만들어 유튜브나 각 종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하며, 지역별로 경연대회도 열리는 등 젊은이들 사이의 일종의 ‘서브 컬처’로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의 청소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 사회의 문화, 종교의 맥락이 ‘이슬람’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물론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 사회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 댄스 커버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슬림 여성들’(주로 여학생들)이라는 점이다. 댄스 커버 팀으로서 경연대회에 참가하거나 자신들의 뮤직 비디오를 촬영할 때 이들의 옷차림은 무슬림 여성이 지켜야만 하는 규범을 벗어나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맨 살로 드러내고, 이를 ‘대중’과 ‘사회’에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슬

2 인도네시아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류의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성장하는 국가에 속한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팀, 『2016-2017 글로벌 한류실태조사』(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6), 49.

람이라는 종교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의 10대 여학생들이 케이팝 댄스 커버를 하는 것과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학생들의 케이팝 댄스 커버는 ‘같은 현상’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과 사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또는 한류 중심의 시각이나 전 세계의 한류에 대한 일반적 조사로는 결코 드러나거나 다뤄지지 않는 ‘특정’의 ‘한류 수용자들’이 놓여 있는 ‘맥락’에 대한 이슈가 된다. 즉,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의 한류 현상은 이슬람의 종교적 규범과 가치와 충돌하며 자문화와 타문화의 갈등 등이 벌어지는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2010년 전후까지만 해도 케이팝 댄스는 주로 관심있는 한류 수용자들의 자체적인 모임과 공간 안에서 향유 되었다. 하지만 차츰 케이팝의 전반적인 확산과 함께 ‘공적’ 영역으로 나오며 이제는 주요한 ‘문화 행사’ 중 하나가 되었고 케이팝을 너머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자체의 ‘서브 컬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 공간으로 나온 이런 케이팝 행사들, 즉 주로 백화점이나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는 행사의 참가자 팀이나 모이는 관객들 대부분도 무슬림 여학생들이며 현장의 분위기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의 행사에서 드러나는 팬들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친구가 속해 있는 팀이 나오거나 좋아하는 케이팝이 나올 때는 ‘떼창’과 ‘구호’ 그리고 ‘환호’로 현장 분위기는 뜨겁다. 여기에 참가하는 댄스 팀들의 복장은 전형적인 무슬림 여성의 복장과는 거리가 멀어서 짧은 스커트나 몸매가 드러나는 스타일, 또는 허리와 배가 노출되기 까지 한다. 춤 역시 케이팝 그룹과 동일하기에 이 역시 이슬람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케이팝 관련 행사는 한 달에 2~3번씩 열리기도 하며 각종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 전시회나 프로모션 등 대

중적인 행사에는 이런 케이팝 그룹들이 초청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고, 보여주고 관람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케이팝 댄스이기 때문이다. 족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스타그램의 케이팝 계정에는 각 팀들의 멤버 모집과 활동 소개, 비디오 클립 등이 포스팅되며 행사 뿐 아닌 자체적인 소모임과 행사들이 소개된다.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의 댄스 커버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이런 한류 팬덤은 인도네시아 사회의 기반이 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당연히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³ 현장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반한류’ 현상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히즈라 케이팝’이라는 운동이었다. ‘히즈라’는 이슬람의 종교적 시작점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데 선지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며 본격적인 이슬람 공동체를 시작한 것을 ‘Hijrah’(히즈라)라고 한다.⁴ 따라서 히즈라 케이팝이라는 것은 ‘케이팝’으로 부터 떠나서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무슬

3 반한류 현상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수정, 김은준. “동남아시아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 『동남아시아연구』 26-3(2016), 1-50. 박지현.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의 변화와 특성 : 한류 팬 커뮤니티 ‘한사모’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6.

인도네시아 입장에서의 한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사 논문이 주류이고 그 다음이 석사 논문이며 분야로는 주로 국제관계, 경영, 한국어, 미디어학, 사회학, 인류학 관련에서 다룬 것들이다. 주로 한류를 ‘외래 문화’로 보며 문화제국주의, 문화사업, 소프트 파워 등의 이분법적 도식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가자마다 대학의(University of Gadjah Mada, 인도네시아의 국립대학) 온라인 도서관에서 “Hallyu”와 “K-pop”으로 검색했을 때 결과는 Hallyu 관련이 총 16개(학사 8, 석사 8), “K-pop”의 경우 36개(학사 24, 석사 12)였다. 인도네시아 대학에서는 학사 과정에서 졸업 요건 중의 하나가 학사 논문이기에 한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부생들의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http://lib.ugm.ac.id/ind/?page_id=248 (2020년 12월 30일 접속)

4 아랍어의 본래적 의미는 ‘이주’(Migration)이다. <https://www.britannica.com/event/Hijrah-Islam> (2020년 12월 24일 접속)

림 한류 수용자들을 향한 일종의 종교적 각성 운동인 것이다. 한류 팬덤이 형성된 곳에는 동시에 ‘반한류’ 현상도 벌어지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반한류’의 운동이 ‘히즈라 케이팝’이라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⁵ 본 연구자가 ‘반한류’가 아닌 ‘히즈라 케이팝’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반한’이 아닌 ‘한류 수용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요소들과 유사하게 작동,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의 한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개의 현상, “케이팝 댄스 커버”와 “히즈라 케이팝”에 대해 기존의 외부자적 시각 - 즉 한국 문화 산업 또는 한국인이 바라보는 한류 현상 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바라보는 한류 수용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용자 입장에서 그들의 종교, 사회, 문화적 맥락과 어떤 연관 속에서 발현되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⁶ 이를 통해 한류를 둘러싼 두가지의 사회, 문화 현상이 단순한 외래의 팝 문화 유입과 유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긴장이 아닌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이 기대

5 구글에서 K-pop과 관련된 ‘Hijrah’를 검색하면 개인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에 익명과 실명의 다양한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한류, K-pop을 ‘우상’, ‘술’, ‘LGBT’ 등이 슬람의 ‘haram’(금지, 부정한 것)으로 연결시키며 한류 수용을 일종의 ‘virus’에 감염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Astuti, Imperialisme Budaya Industri Dunia Hiburan Korea di Jakarta, (MA, thesis, University of Indonesia, 2012), 100, Aisyah Ayesha, “Hijrah? - 10 Langkah Menyahkan Virus Kpop Dalam Diri Kita”(히즈라, 우리 안의 K-pop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10가지 단계), <https://www.wattpad.com/490411312-hijrah-10-langkah-menyahkan-virus-kpop-dalam-diri>, (2020년 9월 27일 접속), Indah Eka, “#6 Perjalanan Bertobat dari KPOP (#6 케이팝으로부터 회개하는 과정)”, <https://indaheka.wordpress.com/2018/01/02/6-perjalanan-bertobat-dari-kpop>, (2020년 9월 27일 접속) 등 그 외 다수

6 한류 현상과 관련한 한국인 중심의 연구 관점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 김형준은 다섯가지로 정리하였고, 향후 확장, 발전되어야 할 방식으로 ‘인류학적’ 접근과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김형준,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 이미지의 형성과 소비: 인도네시아 네티즌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1(2008), 124-127.

하는 ‘세계성’(Globality)⁷과 속해 있는 ‘지역성’(Locality)의 발현이며, 그리고 이 사이에 이들의 중요한 ‘종교성’(Religiosity)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한류 현상을 다루지만 한류를 통해 보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젊은이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In-depth understanding)의 시도이며 이것은 세계화, 근대화 속에 놓인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젊은 세대와 이슬람 안에 야기되는 변화와 담론의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는⁸ 도시로 한정했으며 그 대상은 한류에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를 보이는 무

7 Merriam-Webster 사전의 ‘globality’에 대한 정의는 ‘the condition of being global’이며, 이 개념은 사회학자인 Roland Robertson에 소개되었다. Roland Robertson, “Globality and Modernity”, *Theory, Culture & Society* 9-2(1992): 153-161. ‘세계화’(globalization)가 그 과정과 정도를 담아내는 단어라면 세계성(globality)은 세계화로 인해 형성, 이미 존재하는(global reality) 것으로써, 그래서 개인들이 자신의 지역성을 넘어 인지하는 연결된 사회적 조건의 ‘세계’를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무슬림 젊은이들이 속한 지역 사회, 문화에 대비되는 보다 현대적이며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와 문화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세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8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교육도시로 불리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고등교육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곳이다. 대략 110여개의 고등교육 기관(전문대, 대학교)과 30여만명의 대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절대적인 학생수는 자카르타(수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족자카르타 도시의 면적과 인구수에 비하면 학생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에 따라 생활, 문화도 학생 중심의 독특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족자카르타의 교육관련 통계자료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라. <https://www.bps.go.id/statistictable/2015/09/14/1839/jumlah-perguruan-tinggi-mahasiswa-dan-tenaga-edukatif-negeri-dan-swasta-di-bawah-kementrian-pendidikan-dan-kebudayaan-menurut-provinsi-2013-2014-2014-2015.html> / (2020년 6월 15일 접속)

슬림 젊은이들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질적연구로서 해석주의적 입장에서 접근,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화기술적 방법(Ethnography)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1) 총 36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⁹ 1개의 댄스 팀에 대한 그룹 인터뷰, 2) 케이팝 및 한류 행사에 대한 참여 관찰과 1개의 케이팝 댄스 팀에 대한 참여 관찰 3) 연관된 문서와 미디어 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 기간은 2019년 4월 부터 8월까지이며 두 차례에 걸친 방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히즈라 케이팝 관련하여서는 댄스 커버 팀에 대한 자료 분류와 분석이 마무리 된 2020년 중반부터 말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 방문이 허용되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히즈라 케이팝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운영자 두 명을 접촉하여 온라인 인터뷰와 이들의 SNS상에서의 활동과 게시물에 대해 수집, 분석하였다.

1차 현장 조사를 계획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무슬림 한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족자카르타에서 오랫동안 한국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지인으로(인도네시아 현지사람) 부터 추천을 받아 8명을 개인 인터뷰하였고, 그 대상의 범주는 무슬림으로서 1)한국어를 배우거나 2)또는 한국에 유학 경험이 있거나 3)한류 관련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예를 들면, 팬 클럽이나 직접적인 K-pop 그룹 활동 등) ‘대학생’/ ‘대졸자’ 들이며 일부는 ‘대학 입학 예정자(또는 준비 중인)’ 들이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하며 이들 중 케이팝 댄스 커버 팀에 활동하는 이들은 일반적인 한류 수용자들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었고 별도의 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어 이후 댄스커버 팀에 대한 참여관찰을 2차 현장 조

9 본 글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인용할 때는 익명으로 처리, ‘I-숫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사에서 기획, 진행하게 되었다. 에스노그라피를 이용한 질적 연구여서 처음부터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연구가 진행됨과 동시에 일부 자료 분석과 새로이 연결되는 연구 주제들이 발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케이팝 댄스 커버 팀과 히즈라 케이팝에 대한 이슈를 접하게 된 것이다.

2차 현장 조사에서는 1차 면접자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서 스노우볼(snowball) 형식으로 28명의 추가 인터뷰 대상자들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략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준비된 open-structured 타입의 인터뷰 프로토콜을 사용하였고 앞서 언급했듯이 정량적 통계를 위한 질문과 인터뷰가 아니기에 가능한 대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미있는 발견과 주제들이 확장, 심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1, 2차 인터뷰 총 인원은 36명으로 이중 두 명 만이 남성이다. 성별에 있어 남녀의 비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자체가 여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더 나아가 팬 클럽이나 K-pop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역시 대부분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nowball 형식의 샘플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람들은 여성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연구자의 샘플링에 대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한류 현상’을 통한 접근이었기에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 요소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해치기 보다는 무슬림 젊은이들 중에서 특히 여성들이 한류를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표현하는데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하겠다.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특히 이슬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데,

인도네시아 한류 현상의 내용에는 바로 이 ‘여성’들이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사회 관습, 이슬람의 율법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과 영역에 무슬림 젊은이들이(여성) 연루되어 있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며 충분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장 방문 기간 이후에는 sns나 이메일 연락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 비공식적인 모임과 만남에서의 현장 기록도 포함한다.

텍스트 자료 분석을 위해 Nvivo를 활용하여 코딩 작업을 거쳐, 의미있는 주제와 내용들을 선별하였고 몇 가지 이론에 비추어 현상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 가운데 ‘케이팝 댄스 커버팀’과 ‘히즈라 케이팝’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Ⅲ. 케이팝 댄스 커버

- 무슬림 여학생들의 선택된 ‘세계성’

본 연구자가 무슬림 여학생들의 케이팝 댄스를 처음 관람하게 된 것은 2009년 슈퍼주니어 팬들이 가자마다 대학의 한 강당을 빌려 열린 자체 행사에서였다. 이 당시만 해도 댄스 커버는 공공장소에서는 보기 어렵고 팀으로 조직되어 있기 보다는 일부 매니아들이 자체 행사나 모임 때 필요에 따라 모여 연습, 행사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일종의 ‘장기 자랑’ 처럼 선보이던 형태였다. 2019년 4월과 8월, 두번에 걸친 현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이제는 케이팝 댄스 커버라는 것이 문화 행사로서 공공의 영역으로

진출했으며 그 팀들의 수준과 내용도 점점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류의 유행이나 이에 대한 영향으로만 볼 수 없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여학생들)¹⁰들만의 주체적, 자발적 선택과 표현, 그리고 그것이 표출되는 장으로서의 공적 영역이 케이팝 댄스 커버 문화이며 이것은 무슬림 여학생들이 경험하고 속해있는 사회의 ‘현재성’과 맞닿아 있다고 보여진다.

1. 댄스커버 팀 C에 대한 기술

본 연구자는 인터뷰 대상자 중 댄스커버 팀의 리더였으나 현재는 그만 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C라는 댄스 커버 팀을 소개받아 이들을 인터뷰하고 연습 모임, 사모임 등에 참여하며 연구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룹 인터뷰에는 6명이 참석했으나 이 팀의 전체 멤버는 10명이 조금 넘는다. 이들 중 4명과는 별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멤버는 연습, 준비하는 케이팝 댄스에 따라 참여 인원이 달라지기에 가변적이고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잠시 비활동 멤버가 되기도 한다. 멤버 중 두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한 명은 이미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다.

댄스 팀의 구성은 전 부터 함께 알던 친구도 있지만 공개 모집을 통해 팀원을 받아들이기에 이들 서로가 처음 부터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배경도 다양하며 멤버로 가입하면서부터 개인적인 관계형성을 시작하게 된다

10 본 글에서는 무슬림 ‘여성’과 ‘여학생’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와 신분은 대부분 ‘학생’들이는데, ‘여성’이라는 표현은 맥락에서 좀 더 성별의 의미가 드러나야 하는 곳에서, ‘여학생’은 나이와 신분을 강조해야 하는 맥락에서 사용하였다.

그룹 인터뷰를 한 이들 6명의 멤버의 종교 분포는 1명이 카톨릭이며 나머지는 이슬람이었다. 댄스 커버 팀 멤버들의 이런 종교적 분포는 다른 팀에서도 유사하며 36명의 인터뷰 대상자들 중 댄스 팀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이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였다.(17명이 과거 댄스커버 팀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이다) 멤버들 간의 종교간의 차이가 어떤 긴장이나 거리감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멤버들에게 자신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중 한명의 여학생은 어머니가 이슬람이고 아버지는 국적이 달랐는데 ‘지난 주에는 친구따라 가톨릭 성당에 다녀왔다’고도 하며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해야 할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 보다도 이 팀에서 확인되는 것은 멤버들 스스로가 타인의 종교와 그 실천의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 멤버십 형성 뿐 아니라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종교의 차이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상으로는 ‘가톨릭’이었던 한 멤버는 동성과 연애를 하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개인의 발언을 통해 공개된 상태였는데, 이 역시 멤버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런 문제에까지 개인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으나 적어도 다수의 멤버들이 무슬림으로 종교적 규범에 따라 더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이 자신들의 팀 멤버의 섹슈얼리티를 문제삼거나 이에 대한 긴장과 갈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케이팝과 춤이라는 공동의 취미와 관심이 종교적 차이와 개인의 섹슈얼리티 문제에 우선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태도와 입장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서구사회와 같이 젠더에

대한 인정과 개방,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같은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의 사적 영역, 또는 선택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런 타인의 결정권에 대한 인식은 한류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변론에서도 드러나며 댄스커버 팀들의 복장과 춤에 대해서도 ‘그들의 결정’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만약 (‘Jilbab’ 질밥을)¹¹ 착용토록 주변에서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 이에요.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싫어하고 반감으로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I-09)

“...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정도로 (종교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요. (이 옷차림 보면) 보시다시피 말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길 원하면 그런거죠 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I-05)

위 발언과 같은 태도와 인식은 댄스 팀 사이에서도 드러나며 개

11 무슬림 여성들은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전신도(‘Aurat’(아우랏) 여성으로서 가려야 되는 신체의 모든 부분) 역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사용되는 천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이런 옷차림과 방식을 ‘Hijab’(히잡), ‘Jilbab’(질밥), ‘Kerudung’(끄루둥)으로 표현한다. 엄밀하게 이 세 단어는 약간씩 차이를 갖는다고 하나 일상에서 이 셋은 혼용되어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umsel.tribunnews.com/2017/11/27/hijab-belum-tentu-jilbab-biar-enggak-bingung-ini-persamaan-dan-bedanya> 참고하라. (2020년 6월 22일 접속) 인터뷰 대상자들의 녹취록에는 히잡이 83회, 질밥이 158회, 끄루둥이 16회 언급되었고, 맥락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용문에서는 원래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본 연구자가 언급할 때는 질밥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였다.

인 간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팀 멤버들 간의 관계와 친분은 멤버 4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다. 팀에 대해 표현한 단어로는 ‘가족같은’, ‘친동생들 같은’, ‘가족한테는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함께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털어놓는’ 등이 사용되었다. 연습할 때 뿐 아니라 이들은 평상시에도 서로 자주 만나며 일상을 함께 보낸다고 했고(‘거의 매일 만나요’, 코로나 전의 시기에 이들은 한달에 최소 2-3번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를 위한 연습, 모임의 횟수는 거의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댄스 팀 관련만이 아닌 멤버들과 함께 보내는 내용과 사진들이 다수이다. 물론 모든 댄스 팀들이 이런 멤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다른 팀에서 활동하는 I-22는 예전 팀에서 갈등으로 인해 팀에서 탈퇴한 케이스이다. 케이팝 댄스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모였지만 C팀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들이 단지 기능적으로 춤 연습과 공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상호 이해와 우정의 형성, 친밀한 관계, 이와 더불어 무슬림이지만 서로에게서 ‘비슷한’ 선택을 한 ‘동질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보인다.

36명의 한류 수용자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현 댄스 커버 팀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일반적인 한류 수용자들과 달리 무슬림이지만 전원이 평소에도 질밥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팀의 멤버들 역시 동일했는데 한가지 관찰된 것은 특정한 장소와 모임에 따라서는 질밥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I-02, I-37). 학교나 공적 행사, 집안의 모임 등에서는 경우에 따라 질밥을 선택적으로 착용하며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공개적으로 포스팅을 하였다. 반한류 진영의 비판 중 하나가 무슬림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질밥의 미착용 자체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이나 종교성과 연결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 또한 케이 팝의 영향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¹² 이런 외형적 모습에 대한 시선과 판단은 특히 무슬림 여성들에게 집중된다. 특히 공연할 때의 이들의 복장은 미니 스커트나 신체에 달라붙는 옷 등으로 다리나 허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남자 댄스 그룹의 경우, 그 복장이 어떻든 간에 문제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 그룹의 복장은 이슈가 되는 것이다.¹³ 그러나 공연 후 일상에서 이들의 옷차림은 질밥을 착용 안했을 뿐 여느 대학생과 다를없는 편이다. 종교적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외부자들은 옷차림을 이들의 '종교성'과 연결시키는 반면 당사자인 '내부자들'은 '종교성'과 '특정 상황의 역할적 모습'을 구분한다.¹⁴

질밥을 착용하는 것 외에 무슬림의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하루 다섯번의 기도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댄스 팀 참가자 3명은 'Bolong' (

12. 히잡 착용과 무슬림의 정체성에 대한 이슈에 관한 기사 : <https://www.wjtoday.com/berita/8869/komunitas-menyatkan-hijrah-indonesia-ajak-no-hijab-day-di-medsos> (2020년 6월 22일 접속)

13. 물론 남성들의 경우도 화장이나 여성적 복장의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본 글의 문맥에서 지적하는 것은 일상적 복장과 노출에 관한 이슬람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것이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남성, 또는 춤을 추는 이들은 복장보다는 오히려 '남성성'(Masculinity)의 문제에 직면한다. 인도네시아의 정서에서 한국 아이들은 '예쁘장한', '여자같은' 이미지로 여겨지기에 인도네시아 남성이 케이팝 춤을 추고 따라한다는 것은 'Banci'로 불리우며 이는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에같이 행동한다는 비하의 의미가 있다. 박지현,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의 변화와 특성 : 한류 팬 커뮤니티 '한사모'를 중심으로", 80-81. Tom Boellstorff, "Between Religion and Desire: Being Muslim and Gay in Indonesia", *American Anthropologist* 107-4, 577.

14. 질밥이 갖는 여러 의미와 다양성, 무슬림의 정체성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Lina Meilina Rahayu, "jilbab: Budaya POP dan Identitas Muslim di Indonesia" (질밥: 인도네시아에서 팝 문화와 무슬림의 정체성에 관해), *Kebudayaan Islam* 14-1(2016), 139-155 을 참고하라.

중간 중간 비어있는 것을 의미한다)이라는 표현을 쓰며 매년 지키지는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렇지만 이런 종교적 의무 실천의 미비가 한류의 영향때문은 아니라고 부정한다. 다른 댄스커버 팀에 참여하는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는(I-22) 기도와 금식 등을 꼭 지킨다고 하고, 주변의 일반적인 무슬림 친구들 중에 다섯번의 기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종교적 의무 실행의 정도를 한류와 연관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댄스 팀으로 활동하고 무슬림 여성으로서 질밥을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이나 제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는 부정적 또는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들이 알고 있으며 질밥을 미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결정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진술한다.¹⁵ 흥미로운 것은 언제쯤 질밥을 착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나온 사항은 ‘결혼’과 관련된 답변이었다. 결혼의 시점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질밥 착용은 일종의 ‘신앙적 결단’과 ‘헌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답하였다.

“네, 아마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에야 댄스 커버팀을 그만 두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I-02)

“네, 관계가 있어요.(신앙과 질밥 착용의 문제에 대해) 보통 정말 자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 착용하지요, 왜냐하면 질밥을 착용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을 포함하거든요.” (I-26)

15 부모들의 당부는 케이팝 댄스에 대한 염려가 아닌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이 주였다. I-02의 경우 부모가 댄스 커버팀을 그만두는 것을 권유했으나 본인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는 의지가 강하자 노출되는 옷차림은 무대 위에서 서만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댄스 커버팀 멤버들의 질밥 미착용과 관련된 발언에서 케이팝과 연관된 중요한 인식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질밥 미착용의 문제를 종교의 규범 문제로 보지 않고 케이팝 댄스에서의 복장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이 그 형식이며 어울리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는 꼬루등을 착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춤을 추고 싶거든요. 춤 춘다는 것은 꼬루등을 쓰지 않는거잖아요.” (I-28)

“... 내가 히잡을 착용한다는 것은 곧 춤추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안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I-22)

댄스커버 팀에서 활동하는 멤버들은 현재 질밥을 착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다섯번의 기도에 충실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슬림이라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볼 수는 없겠다. 단지, 케이팝 댄스에서의 ‘질밥’ 착용은 상황적으로 맞지 않기에 일종의 ‘타협’적 선택이며, 비록 그것으로 인한 ‘비난과 비판’이 있다할지라도, 자신들은 ‘적절하게’ 의상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과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진술한다. 댄스 멤버들의 발언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슬람의 규범에 대한 언급에서 무슬림 여성이 머리와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는 것이 ‘죄’라고 언급한다는 점이다.

“사실은 이슬람에서는 ‘죄’예요. (웃음과 함께)” (I-02)

“우리가(댄스 멤버들이)하는 행위들은 아마도 잘못된 방향이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비록 나름 옷을 절제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몸을 노출시키고 꼬루등을 쓰지 않았으니 잘못됐다면 그렇다고 해야지요.” (I-33)

이런 발언과 이들에 대한 관찰은 케이팝 댄스 팀이라는 현상을 종교성의 약화나 세속화 문제로 접근하는 비판적 외부 시각이 위와 같은 내부자의 인식과 동기를 간과하며, 그리고 ‘위반’까지 감내하는— 외부로부터의 비판과 자신 스스로의 인식 모두— 의미에 대한 설명을 풀어내지 못함을 드러낸다.

C팀 멤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관찰은 케이팝 댄스 공연이라는 현상 안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과 무슬림 여성들이 놓여있는 맥락과 복합적 요소들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류와 그 유행에 대한 현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지만 그 현상을 가능케 하고 이와 관련된 현지의 사회 문화적 요인과 배경의 중요성을 살피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슬람의 종교적 규범과 그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에 부조화와 긴장을 생산하는 활동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기에 그런 사회적 압력과 내부적 충돌을 넘어서서 선택하게 만드는지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케이팝 댄스와 공연이 주는 의미

무슬림 여성이지만 케이팝 댄스 공연으로 무대에 설 때에는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종교적 규범의 위반이 아닌 케이팝 댄스와 공연이라는 시간과 공간, 역할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정체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케이

팝 댄스와 공연은 자신의 취미 활동일 뿐이며 이를 종교적 규범과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저는 (종교적 의무, 하루 다섯번의 기도와 같은) 잘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취미’는 ‘취미’일 뿐이고, ‘종교적 의무’는 ‘종교적 의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I-12)

“... 예를들면 케이팝은 그저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볼 수 없어요, 문화라는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안되죠...” (I-28)

케이팝 댄스 커버팀 활동을 ‘취미’로 언급하며 자신의 종교적 의무와 구분짓는 이런 ‘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활동에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에서 발견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제가 아이돌이 되는 느낌이에요.” (I-22)

“저의 талан트를 발견해요.” (I-13)

“춤을 추고 공연을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I-19)

“무대 위에 서는 게 중독처럼 느껴져요. 계속 무대 위에 서고 싶어져요.” (I-33)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분위기가 새로워져요.” (I-37)

“예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자신감을 얻었어요.” (I-37)

“무대에 서서 공연하면 행복해져요.” (I-38)

이들의 표현을 정리해 보면 케이팝 댄스커버와 공연은 자신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그 노력의 결과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자아실현과 표출이 이루어지는 형식과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연’이라는 형식을 통해 관중들로부터의 호응과 지지를 받으며 이런 느낌과 인식은이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연 현장의 분위기가 따가운 시선과 싸늘한 반응이라면 아무리 자신들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질밥을 쓴 젊은 무슬림 여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많은 관객들이 함께 떼창과 환호와 구호를 외치는 장면은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공연 현장과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류 수용자들 중에 이슬람 규범에 충실한 이들조차도, 자신은 댄스팀처럼 옷차림이나 활동을 하지 않지만, 댄스 커버 팀들의 무대에서의 의상이나 춤에 대해 전혀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케이팝 공연을 관람하던 당신의 친구(제 3자의 무슬림 젊은이)가 무슬림 여학생들의 케이팝 공연을 보며 이것은 잘못된 행위이다라고 비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심층 인터뷰 대상자 36명 전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을 제3자가 판단,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술했다. 옷차림과 춤 등이 이슬람 규범과 어긋나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생각할 때 이런 비난과 비판에 대한 정반대의 옹호적인 답변은 본 연구자와 같은 외부자 입장에서는 ‘상충’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부조화’의 문제는 무슬림 한류 수용자들이 종교적 정체성만이 아닌 인도네시아가 다원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사회, 문화적 관습에도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터뷰 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심층

인터뷰 대상자 전원과 댄스 커버 팀 멤버들 중에 한류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으로 부터 갈등과 긴장을 겪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반한류 또는 한류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비판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직접 자신들이 경험한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상대적으로 ‘고맥락’ 사회, 즉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아닌 상황과 분위기에서 간접적인 전달과 관계를 중요시 하기에 분쟁과 다툼을 피하는 경향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의 발언과 행동들은 한류 현상 안에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화, 종교적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연구 초기에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발견과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다시 이 현상의 중심에 다수의 무슬림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한류 현상을 통해 젠더의 문제를 조명하게 만든다.

3. 여성이라는 섹슈얼리티의 장으로서의 케이팝 공연

C팀에 대한 인터뷰와 참여 관찰, 한류 수용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케이팝 댄스와 공연이 단순한 유행이나 이유없는 ‘따라함’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압력과 긴장을 직면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 안에서의 종교적 정체성과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살펴 보았다. 이런 과정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현상이 케이팝 댄스 커버팀들의 공연인데 이것은 특별히 여성들(여학생들)의 장(場)으

16 Dodi Wirawan Irawanto, "An Analysis of N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Practice in Indonesia", *Diversity Management* 4-2(2009), 43-44, Rachmat Kriyantono, Bernard Mckenna, "Developing a Culturally-Relevant Public Relations Theory for Indonesia", *Malay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3(1)(2017), 4.

로서 선택되고 표출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 이유는 케이팝을 좋아하고 케이팝 댄스를 연습하고 이를 공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다 음의 수식어들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창의적인”, “프로페셔널한”, “정직한”, “멋있는”,
“표현하는”, “새로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속하지 않은”

한류와 연관된 표현 중 특징적인 것은 바로 ‘현대적’(Modern)이라는 표현이다.(인터뷰 대상자들이 한국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 등을 통해 접하는 한국 사회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묘사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서양 사회의 문명과 발전을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이들이 한류, 즉 한국 사회를 자신들이(동양이며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을 가진)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 사회와 문화’라고 보는 듯 하다. 이에 반해 미국과 서양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속(Vulgar)”, 또는 “비도덕적 삶(*hidup yang bebas*)”¹⁷이란 표현으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물론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이슬람 종교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모두 잘 인식하고 있지만 문화의 차이로 인식하며 오히려 좋은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케이팝 그룹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서양과 구분하며 ‘저속하지 않은’ 것으로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한류를 수용하고 댄스커버팀 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 노력

17 영어로 직역하면 Free Life로서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생활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며 ‘현대적인 것들의 수용’이지, 자문화에 대한 경시 또는 ‘한국화되거나’ ‘선정적’, ‘섹스 어필’의 의도가 아닌 것이다.

이런 인식은 케이팝 댄스 커버 팀 만이 아닌 공연에 함께 하는 관중들에게도 이어진다. 특별히 여성들의 공간으로서 소통과 연대, 축제의 장으로 작동된다고 보여진다.¹⁸ 그런 면에서 무대 위의 무슬림 여학생들의 춤과 의상은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일상적 규범, 즉 몸과 옷차림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풀어지는 ‘일시적’ 시공간이며 그것이 관중들(함께 하는 질밥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연대함으로 ‘허용’되는 상징성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그렇기에 이들 사이에는 종교적 규범의 잣대로 인한 판단이 개입할 시공간이 아닌 것이다. 질밥을 착용한 무슬림 관중이나(한류 수용자들) 무대에 올라선 무슬림 여성들 모두에게 상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없다. 본 연구자가 무슬림 여성들의 이런 행위를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규범으로 부터의 ‘일탈’이나 ‘저항’, ‘젠더간의 불평등 문제’로 기술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스스로 자신을 ‘무슬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케이팝 댄스 공연을 통해 드러나는 종교적 규범과의 어긋난 행위들은 ‘일시적’이며 그 시공간에 필요한 ‘적합성’ 문제로 발언하기 때문이다.

무슬림 남성들이 자신들의 옷차림이나 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표출할 수 있는 반면, 무슬림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에 케이팝 댄스 커버의 공연이라는 장(場)은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함께 하고’, ‘소리 지르고’, ‘이야기하고’, ‘세

18 팬덤 문화와 공연이 각각의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와 역할로 관계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지은, “팬덤과 섹슈얼리티 관계 연구 - ‘아사노 타다노부’ 팬덤 문화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 서강대학교), 2004 을 참고하라.

계의 유행과 함께 하며’,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 선택의 문화 형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케이팝 유행이 아닌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학생들이 선택하고 형성한 자신들의 ‘서브 컬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케이팝의 팬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팝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것’으로서 ‘자문화’ 가운데에는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표출될 수 없던 ‘세계성’의 내용들을 - ‘현대적인’, ‘자아 실현의’,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세계와 공유하는’, ‘보다 나은 가치의’(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들) - 자신들의 ‘지역성’ 속에 끌어들이는 상징의 의미로 파악된다.¹⁹

IV. 히즈라 케이팝 - 무슬림 여학생들의 선택된 ‘종교성’

‘히즈라 케이팝’에 대한 연구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닌 한류 수용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한류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두 명의 인터뷰 대상자로 부터(I-04, I-11) 언급되므로써 연구에 포함되었다. 한류의 확산 만큼 반한류 움직임도 공식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한류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작동한다. 하나는 자문화 중심 시각에서 한류를 문화제국주의, 경제적 침략으로 보고 두번째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입장에서 한류의 비이슬람적 가치와 요소들을 문제삼으며 한류와 그 수용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 동시에 종교적 각성주의로 드러난다.

19 케이팝 댄스 커버 팀은 한국의 특정 아이돌 그룹의 팬이 아니다. 케이팝 노래와 춤을 ‘차용’할 뿐이며 선택하는 아이돌 그룹과 노래는 수시로 바뀐다.

본 연구자가 히즈라 케이팝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캠페인이 여타 다른 반한류 움직임과 구별되며 동시에 케이팝이 서브컬처로 성장하는데 작동한 방식과 요인들과의 유사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간략히 정리된 사항을 요점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Hijrahkpop.id*와 *Kpopershijra* -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히즈라 캠페인

먼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계정으로, *Hijrahkpop.id*와 *kpopershijrah*이다. 히즈라 케이팝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글들을 조사 후 인스타그램에서 ‘Hijrah’로 검색하여 목록에 뜬 계정들 중 팔로워가 가장 많고 포스팅이 자주 올라오며 댓글이 활발한 계정을 선택하였다. *Hijrahkpop.id*의 운영자를 접촉하여 동의 후 이메일과 SNS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1차 자료 조사 후 소개를 받아 *kpopershijrah* 운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Hijrahkpop.id*는 전체 팔로워가 대략 12.1k로 나와있고, 운영자는 자카르타에서 활동 중이며 계정을 소개하는 항목에는 ‘XK-POPERS bukan HATERS’, 번역하면 ‘증오자가 아닌 엑스 케이팝 퍼스’라고 할 수 있겠다. *kpopershijra*의 경우 보다 많은 31.8K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²⁰ 계

20 인스타그램의 케이팝 계정인 *jogjakpopersmedia*의 팔로워가 1만명 미만인데 히즈라 케이팝 계정이 인원이 더 많은 이유는 아마도 히즈라 운동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전국 단위이고 *jogjakpopersmedia*는 족자카르타라는 지역 중심의 운영이어서 차이가 난다고 추측된다.

정 소개에는 “Hi Chingudeul Let’s back to Muslim Identity | Back to Allah | Back to Islam | Back to Al Quran” 라고 적혀있으며 보다 분명한 목적을 밝힌다. 사용한 해쉬태그로는 “#goodbyeoppa”로 번역을 한다면 “잘가! 오빠~”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이 두 계정의 운영자 모두 자신을 케이팝 팬이었다고 소개하며 2017년 전후 부터 히즈라 계정을 운영했다고 한다.

2. 두 개정의 운영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포스팅 내용에 대한 분석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와 이들의 포스팅, 블로그 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류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에 대해 인정한다. ‘창의적이고’, ‘노력하고’, ‘진지하고’ 등 다른 한류 수용자들이 묘사하는 것과 동일하며, 한류에 대한 부정적 묘사나 비판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케이팝 ‘오빠’들을 통해 얼마나 힘을 얻고 기분도 전환되는지 언급하기도 한다.

둘째, 따라서 이들의 캠페인은 ‘반한류’라기 보다는 일종의 종교적 각성에 초점을 둔다.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고 꾸란을 진지하게 읽고 ‘알라’(Allah)를 우선으로 하는 삶은 자연적으로 케이팝 또는 한류를(비무슬림들의 문화) 멀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류, 케이팝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세상적인 기쁨’, ‘소모되는 것’이며 그 반대로 신앙은 영속적인 것이며 ‘알라’(Allah)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대비한다.

셋째, 케이팝과 한류가 특별히 무슬림 여성, 더 나아가 십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아이돌 그룹의 외모(오빠들)에 십대

소녀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들의 대상도 방식도 무슬림 십대 여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포스팅의 내용에는 무슬림 남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포스팅은 짧은 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Oppa’(오빠)이다.

넷째, 전(Ex) K Pop 팬으로서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설득’하고 포스팅의 내용에 ‘한류 친화적’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며 무슬림 여학생들과 공감을 형성한다. “진짜”, “화이팅”, “괜찮아”, “사랑해” 등, 포스팅 그림만 보면 ‘한류 수용자’의 글처럼 보이거나 그림 카드와 연결된 내용을 읽어보면 ‘당신도 히즈라 할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히즈라 케이팝 캠페인은 온라인 상에서만 운영이 된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조직과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케이팝 경연대회나 공공 장소에서의 이런 한류 행사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어떤 보이콧이나 스폰서 회사, 단체 등에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 등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그런 공개적인 행위는 이슬람의 ‘Dakwah’²¹의 가치와 정신에 위배되는 ‘거친’ 행위로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오프라인은 주로 소수의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꾸란을 공부하거나 사회 활동에 머문다고 한다.

21 Dakwah에 대한 정의는 “the invitation, addressed to men by God and the prophets, to believe in the true religion, Islam” 또는 “Islamic propaganda / Islamic Mission”으로 정의된다. Bernard Johan Boland, *The Struggle of Islam in Modern Indonesia* (The Hague: Martinys Nijhoff, 1971), 190.

3. 히즈라 케이팝 운동이 갖는 독특성

히즈라 케이팝 캠페인이 갖는 방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이 캠페인의 주도자가 종교 권위자나 전문인이 아닌 일반적인 한류 수용자였던 일종의 ‘평범한’ 젊은 무슬림 여학생들이라는 것이다. 한류 수용자들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종교 지도자나 부모가 아닌 자신의 주체적 인식과 권리를 내세우는 것 처럼 히즈라 케이팝 운영자들도 스스로의 성찰적, 자발적 인식 가운데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정반대의 두 현상은 수직적 권위의 전통적 작동 방식을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둘째,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히즈라 케이팝은 비판과 비난, 논쟁이 아닌 ‘자기 경험의 나눔’이나 ‘상기시켜 주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행동하도록 대상자의 주체적 성찰에 맡긴다. 한류와 케이팝 수용자들의 모임과 참여가 자발적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처럼 히즈라 케이팝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민과 의견을 나누며 동질성을 공유하는 방식인 것이다.

셋째, 두개의 현상 모두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고착되고 부여된 종교적 정체성에서 한류를 접하

22 세계화와 근대화에 따른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세속화’이다. Casanova는 세속화에 대해 세가지 타입을 제시하며 유럽에게서 나타난 세속화와 그 나머지 세계에 나타나는 세속화 현상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한다. 그 중 인도네시아 사회에 적용되는 방식은 ‘종교의 개인화’(Privatization of Religion)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Jose Casanova, “Is Secularization global?” in G. Buß & M. Luber (Eds.) (Verlag Friedrich Pustet, 2013), 69–82. 사회의 분화와 함께 전통 사회의 메커니즘이 ‘개인’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Mark Chaves, “Secularization as Declining Religious Authority”, *Social Forces* 72–3(1994), 749–774.

고 경험하며 자신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성을 ‘형성해 가고’(Becoming)있다는 점이다.²³ 세계화와 근대화라는 상황 속에서 한류 수용자들은 종교적 정체성의 ‘현대화’(Modern Muslim)를 지향하는 반면, 히즈라 케이팝은 이것을 종교적 정체성의 타협으로 보며 오히려 경험한 ‘세계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스스로 ‘종교성’을 중심으로 ‘진정한(Kaffah) 무슬림’을 지향한다.²⁴ 그러나 히즈라 케이팝의 이런 ‘종교성’의 선택과 발현이 이슬람 근본주의(Fundamental Islam)에 기인한 것 보다는 온건주의 이슬람(Moderate Islam)의 경계 내에서 표방 된다고 볼 수 있다.²⁵

V.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의 케이팝 댄스커버 문화와 한류의 유행이라는 현상은 바라보는 이들의 제 각각의 경험과 입장 속에 다양한 ‘사건’으로 의미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구의 초점을 한류가 아닌 한류를 ‘통해’ 보는 수용자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그들이 놓여 있는 맥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만든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젊은이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중심

23 정체성의 다층적 측면 : Susan R. Jones and Marylu K. McEwen, “A Conceptual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4(2000), 405-414. 상황에 따른 특정한 정체성의 발현 : Vassilis Saroglou and Francois Mathijsen, “Religion, multiple identities, and acculturation : A study of Muslim immigrants in Belgium”,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9-1(2007), 177-198.

24 Kaffah는 꾸란 (2:208)에 나오며 영어 단어로는 ‘whole-heartedly’로 번역되었다.

25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Kaffah*를 다룬 것으로는 Dian Andesta Bujuri(et al.), “Kaffah Islam in the Context of Indonesia, Between Fundamental and Moderate Islam”, *Advanced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492(2020), 315-321 참고하라.

에 놓인 이 두개의 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는 단지 현상에 대한 기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세계화의 문화 전이 속에 벌어지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반응과 방향으로 논의를 이끈다.

첫번째 확인하는 것은 무슬림 젊은이들 역시 두 개의 세계 사이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신앙과 규범의 정체성이라는 주어진 '지역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세계화', '근대화'라는 맥락에서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성'에 참여하고 있다. 일방적인 '세계화'의 대상(To be 'globalized')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다양성'의 문화와 '세계성'을 종교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의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뿐 아닌 그 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 뿌리내려온 각각의 종교들이 당면하는 도전이 된다.²⁶ 또한 무슬림 젊은이들의 케이팝 댄스커버 문화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영향받은' 유행을 넘어서 자신들이(무슬림으로서) 기대하고 원하는 '세계성'에 대한 일종의 선택으로 이해될 때, 그것이 결코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거부나 약화의 측면이 아니며 오히려 어떤 '근대성'의 무슬림을 지향하는지 그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두번째로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은 권위의 다극화, 개인

26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의 변화와 민주, 시민 사회에서의 전개 과정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W. Hefner, *Civil Islam*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Bernard Johan Boland, *The Struggle of Islam in Modern Indonesia*.

27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아니지만 유럽 각국의 젊은이들의 종교성에 대해 조사한 *Youth in Europe III*는 종교적 삶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Hans-Georg Ziebertz, William K Kay, Ulrich Riegel(eds.), *Youth in Europe III* (Münster: LIT, 2009), 43-44.

의 주체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구 유럽에서의 세속화 양상과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 역시 산업화, 근대화 속에 전통적 메커니즘보다는 그 결정의 주체로서 개인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⁸

한류를 수용하는 무슬림 젊은이들의 수는 전체 무슬림 인구에 비해 아주 소수일지 모르지만, 케이팝 현상은 무슬림 젊은이들이 겪는 지역성과 세계성,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요 정체성 기제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 개인에 의해’ 어떻게 ‘발휘’ 되고 또 ‘제한’ 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한류 수용자들 뿐 아닌 히즈라 케이팝 운동에서도 드러난다. 그 운동의 주체와 운영 방식, 참가자들 모두 ‘평범한’ 개인들이며 한류 수용자들과 같은 경험을 했지만 반대로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자신의 ‘종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세속화는 한 방향이 아닌 다면적이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⁹

세번째로 케이팝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하나의 문화 현상을 넘어 종교가 ‘근대화’에 어떻게 반응하며 관계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며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로 이끈다. 현 세계가 다원적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이론인 아닌 이미 자신의 지역성 안에서 경험하고 또 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무슬림 젊은이들에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라는 중

28 Lauren Leve, "Identity", *Current Anthropology* 52-4(2011), 513-535, Ziebertz(et al.), *Youth in Europe* III, 120.

29 Robert W. Hefner, "Multiple Modernities: Christianity, Islam, and Hinduism in a Globalizing 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7-1(1998), 90. Ronald A. Lukens-Bull, "Two Sides of the Same Coin: Modernity and Tradition in Islamic Education in Indonesia",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32-3(2001), 368-369.

교는 적어도 한류 수용자들에게는 단일하며 유일한 정체성의 기제로 작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에게는 ‘문화’를 ‘종교’로 부터 구분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인도네시아를 포함 대부분의 제3세계의 근대화, 세계화는 서구 유럽과 달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슬람이 갖는 종교의 특성이 있기에 현대사회 속에서의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기에는 아직 일러보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갖는 변수는 사실 문화나 종교의 문제가 아닌 자국내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소환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일 수도 있다.³⁰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이슬람’이 중동지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성, 다원성의 바탕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원성의 사회와 세계에 대한 ‘이슬람 사회’의 가능한 진행 방향에 대한 중요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류 현상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이슈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선교적’ 연구가 아닌 ‘문화인류학’의 시각에서 현장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자에게 ‘선교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특정한 관점과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그리고 ‘목적론’적이어서 이미 접근자의 편향성이 개입되어 있고 연구 대상

30 Hefner는 그의 책 7장에서 무슬림과 폭력, 그리고 국가의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Robert Hefner, *Civil Islam*, Chap. 7 을 참고하라. 무슬림이라는 정체성과 이슬람주의, 정치의 연관에 대한 것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Salwa Ismail, "Being Muslim : Islam, Islamism and Identity Politics", *Government and Opposition* 39-4(2004), 614-631.

에 대한 이해보다는 도구화의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적’ 시각의 이해와 기술 전에 그 현상의 중심에 있는 내부자의 입장으로 ‘그들’이 놓인 상황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맥락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 연구, 또는 기독교 입장에서 선교학적 연구가 종종 그 대상 종교의 교리와 경전, 믿음 체계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쉽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종교의 존재는 바로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존재, 유지되며 그 사람들의 다양성 만큼 종교 역시 현실 속에서 하나가 아닌 다양한 이해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 또는 기독교 관점에서의 선교적 연구는 ‘경전’에(Text) 대한 연구 만이 아닌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Context)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것은 그 대상자들이 놓인 문화, 종교,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이해를 필요로 함을 뜻한다.

이런 관점과 이해는 무슬림 여학생들의 케이팝 댄스 커버와 히즈라 케이팝 캠페인을 단순한 친한류, 반한류 현상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근대화, 세계화 속에서 문화 전이를 경험하는 무슬림 젊은이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대두, 그리고 이 현상이 어떻게 다르게 의미화되고 사건화 되는지 개입되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현장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무슬림 젊은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들의 ‘지역성’을 넘어서는 ‘세계성’에 대한 욕구와 참여이며, 이 과정에서 발휘되는 자기 결정권과 종교적 정체성의 선택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현상만을 보고 이를 무슬림 젊은이들의 세속화나 개인주의의 등장이라고 속단해서

는 안될 것 같다. 연구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작동되는 기제는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오랜 특성인 다양성과 이에 대한 허용성(Tolerance)의 문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히즈라 케이팝은 무슬림 젊은이들 안에서의 '세계성'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지역성'의 강화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다행인 것은 비난과 비판을 통해 갈등의 고조와 선명성에 대한 강조가 아닌, 나눔과 대화, 이해라는 방식으로 한류 수용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류를 둘러싼 이 양측 모두에게서 보이는 것은 기존의 '극단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목소리나 행위는 거부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내부적 다양성과 경향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타문화', '타종교'에 대한 접근과 태도 보다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차이'와 '변화'가 중요한 담론과 이슈로 등장할 것임을 예시한다. 그렇기에 외부자적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슬람을 '단원'(單元)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결코 그 실체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본 연구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현장 연구의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일반적 기술, 또는 보편 타당한 이론화 작업을 지향하지 않는다. 또한 이슬람학에 대한 전문 연구가가 아닌 '문화인류학' 입장에서 문화와 종교 현상으로 접근하였기에 이로 인한 한계도 있다. 그러나 질적연구로 진행된 본 논문의 내용이 정량적 데이터의 부족으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이해, 통합적 해석에 연구자의 편향성은 언제나 개입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종류의 자료 수집이나 방법이 아닌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 현장 조사, 온라인 조사, 그리고 연관된 논문과의 비교 등을 통해 본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며 다시 주어진 후속 과제는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연구라는 생각이 든다. 본 연구자의 문화인류학적 접근의 현상에 대한 연구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인도네시아 이슬람에 대한 다른 전문적인 연구들과 함께 ‘무슬림’이라는 단일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며 심층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문헌

- 김지연.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19』. 서울: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9.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2017 글로벌 한류실태조사』. 서울: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6.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마켓 브리핑 통권 3호』. 나주: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 김수정, 김은준. “동남아시아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 『동남아시아연구』 26(2016/3), 1-50.
- 김형준.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이미지의 형성과 소비 : 인도네시아 네티즌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008/1), 123-149.
- 박지현.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의 변화와 특성 : 한류 팬 커뮤니티 ‘한사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지은. “팬덤과 섹슈얼리티 관계 연구 - ‘아사노 타다노부’ 팬덤 문화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Boland, B. J. *The struggle of Islam in modern Indonesia*.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1.
- Hefner, R. W. *Civil Islam*.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Ziebertz, Hans-georg; Kay, William K; Riegel, U(eds.). Münster: *Youth in Europe III*. LIT, 2009.
- Astuti. “Imperialisme Budaya Industri Dunia Hiburan Korea di Jakarta (Studi terhadap Remajaremaja Jakarta yang Menggemari Musik Pop Korea).” University of Indonesia MA thesis, 2012.
- Bujuri, Dian Andesta, Hidayah, Nurul, Yanti, Yuli, Fikriansyah.

- Baiti, Masnun. "Kaffah Islam in the Context of Indonesia, Between Fundamental and Moderate Islam."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Vol 492(2019): 315–321.
- Casanova, J. "Is secularization global?" In G. B. and M. Luber (Ed.), *Neue Räume Öffnen: Mission und Säkularisierungen weltweit* (2013): 69–82.
- Chaves, M. Secularization as Declining Religious Authority. *Social Forces*, 72–3(1994): 749–774.
- Irawanto, Dodi Wirawan. "An Analysis of N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Practice in Indonesia." *Diversity Management* 4–2(2009): 41–48.
- Hefner, R. W. "MULTIPLE MODERNITIES: Christianity, Islam, and Hinduism in a Globalizing 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7–1(1998), 83–104.
- Ismail, S. "Being Muslim: Islam, Islamism and identity politics." *Government and Opposition* Vol. 39–4(2004): 614–631.
- Jones, S. R., & McEwen, M. K. A conceptual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4(2000): 405–414.
- Leve, L. Identity. *Current Anthropology*, 52–4(2011): 513–535.
- Lukens–Bull, R. A. Two Sides of the Same Coin: Modernity and Tradition in Islamic Education in Indonesia.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32–3(2001): 350–372.
- Rahayu, L. M. (2016). jilbab: Budaya POP dan Identitas Muslim di

- Indonesia. *Kebudayaan Islam* 14-1(2016): 139-155.
- Kriyantono, Rachmat., Mckenna, Bernard. "Developing a Culturally-Relevant Public Relations Theory for Indonesia." *Malay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3-1(2017): 1-16.
- Roland Robertson. "Globality and Modernity." *Theory, Culture & Society* 9-2(1992): 153-161.
- Saroglou, V., & Mathijssen, F. Religion, multiple identities, and acculturation: A study of Muslim immigrants in Belgium.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9-1(2007): 177-198.
- Aisya Ayesha. "Hijrah? - 10 Langkah Menyahkan Virus Kpop Dalam Diri Kita" (히즈라, 우리 안의 K-pop 바이러스를 확인 하는 10가지 단계). <https://www.wattpad.com/490411312-hijrah-10-langkah-menyahkan-virus-kpop-dalam-diri> (2020년 9월 27일 접속)
- Indah Eka, "#6 Perjalanan Bertobat dari KPOP" (#6 케이팝으로부터 회개하는 과정). <https://indaheka.wordpress.com/2018/01/02/6-perjalanan-bertobat-dari-kpop> (2020년 9월 27일 접속)
- <https://www.bps.go.id/statictable/2015/09/14/1839/jumlah-perguruan-tinggi-mahasiswa-dan-tenaga-edukatif-negeri-dan-swasta-di-bawah-kementrian-pendidikan-dan-kebudayaan-menurut-provinsi-2013-2014-2014-2015.html> / (2020년 6월 15일 접속)
- http://lib.ugm.ac.id/ind/?page_id=248 (2020년 12월 30일 접속)

<https://www.britannica.com/event/Hijrah-Islam> (2020년 12월 24일)

<https://sumsel.tribunnews.com/2017/11/27/hijab-belum-tentu-jilbab-biar-enggak-bingung-ini-persamaan-dan-bedanya> (2020년 6월 22일 접속)

<https://www.wjtoday.com/berita/8869/komunitas-menyesatkan-hijrah-indonesia-ajak-no-hijab-day-di-medsos> (2020년 6월 22일 접속)

■ ABSTRACT

The Issue of ‘Globality’ and ‘Religiosity’ among Muslim Youth in Indonesia

: K-pop Dance Cover and Hijrah
K-pop Phenomena

Eui Young Kyung

This study is an in-depth attempt to understand the perceptions and changes of the religious identity of Muslim youth with regard to the phenomena of both the “K-pop Dance Cover” (a kind of subculture among Indonesian Muslim youth) and, on the opposite end, the “Hijrah K-pop” campaign (born out of anti-Korean Wave sentiment), considering both in the line of *globality* and *locality*. Muslim women who participate in K-pop dance covers refuse to associate their activities with religiosity. For them, this is a choice and desire for *self-actualization* and better values to participate in globality, not secular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Hijrah K-pop campaign, led by ex-K-poppers who experienced this cultural assimilation, is the result of choosing *religiousness* again through *self-awareness* in culture—a matter of what is *Islamic* and *non-Islamic*. These contrasting phenomenon of Muslim women who are experiencing various cultural acculturation amid globalization reflects the complex

and pluralistic aspects of Indonesian Muslim society. Furthermore, the *difference* and *change* of perception among the women exemplify how the prominent authority and role of Islam will become more multi-polarized, differentiated, and personalized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modernization.

Keywords: K-pop Dance Cover, Hijrah, Indonesia, Muslim Youth, Globality, Locality, Religiosity, Identity